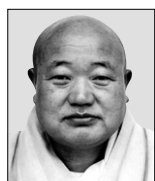


일 주 문



효행어린이회 6주년 기념음악회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6월 15일 효행어린이회 6주년 기념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031)234-0040



제3회 불국사여름수련회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7월 26-28일 불국사 일대에서 제3회 불국사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054)746-0983



2013 하안거 토요 철야참선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6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하안거 토요철야 참선을 진행한다. (02)768-8524



정각회 천태종 총무원장 초청법회 정각은 국회 정각회 회장은 6월 21일 오전 7시 서울 관문사 대불보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대학윤리위원장 선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6월 12일 대학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학윤리위원회는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구다.



제30기 기초불교영어강좌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7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제30기 기초불교영어강좌'를 개최한다. (02)722-2206



서울국제도서전 저자와의 대화 수필가 맹난자 씨는 6월 20일 오후 5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 '저자와의 대화'에서 독자와의 만남에 나선다.

법규위 새 위원장 몽산 스님 선출

79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의현 스님 청구 종료



조계종 법규위원회 신입 위원장에 몽산 스님(축성암 주지)이 선출됐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6월 12일 79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의현 스님(서황동) 별빈 징계 심판 청구의 건 등을 다뤘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장 후보로 몽산 스님과 재원 스님이 추천됐으나, 재원 스님의 후보 사퇴로 몽산 스님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몽산 스님은 "중헌 중법을 통해 법규위를 운영해 중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규위는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특별재심을 요구한 의현 스님의 청구에 대해 '심판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는 의현 스님이 심판 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이뤄졌다. 신종일 기자

“이제는 박물관이 관객에게 다가가야”

10년 박물관에 헌신한 한선학 고관화박물관장



수집·전시·활용 새 장 열어 뮤지엄스테이, 체험프로 각광 10년간 3만명 고관화 경험해

한국을 대표하는 목판화 전시 전문박물관 명주사 고관화박물관. 전세계 4000여 점의 판화를 소장한 이 곳이 6월 20일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한선학 관장은 10년을 맞은 소회와 포부를 밝혔다. 한선학 명주사 고관화 박물관 관장이 판화를 수집하게 된 것은 18년 전부터다. 불교 조각에 관심이 많았던 한 관장은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군법사로 복무했다. 군법사 당시 우연히 찾은 인사동에서 판화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그는 지금의 명주사 터에 기반을 꾸리게 됐다.

“한때 예술가로서 등단의 꿈을 갖고 있기에 출가하며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고관화 박물관으로 풀게 됐습니다.” 2004년 박물관 문을 연 이래 한 관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인도, 네팔 등지를 다니며 직접 판화를 수집했다. 사립박물관 운영이란 재정적 어려움에도 꿋꿋히 외길을 걸어 나왔다.

집니다. 초기 고관화 박물관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박물관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관장은 2011년 한국고관화학회 초대 회장으로 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꾸준히 판화를 수집하는 한편, 박물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박물관에 머

물며 목판화를 직접 새기는 체험도 가능한 뮤지엄스테이는 큰 호응을 얻었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문화예술교육기관 선정, 2013년 문화재단 생생문화재사업 선정 등 10년이 지난 지금 고관화박물관은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했다. 각종 사업으로 10년간 명주사 고관화박물관에서 무료교육을 받은 이들이 3만명에 달한다. 고관화 박물관은 이런 노력으로 2010년 서울시교육청 학습교육기관, 2011년 템플스테이 사찰 등에 지정됐으며 2013년 문화재단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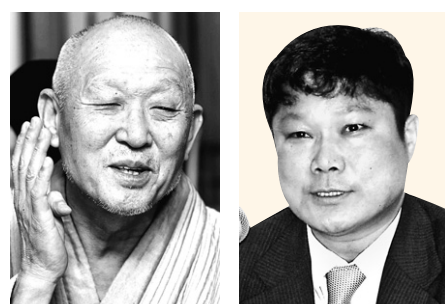
“단순하게 소장품을 전시하고 보고가는 곳을 넘어 박물관을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는 곳으로 발전 시켜야 합니다. 불교계 성도 박물관들도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개발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1사찰 1박물관 운동을 펴고 있는 한 관장은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문화포교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관장은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다. 수장고에 아무리 잘 보존을 해도 수천년이면 사라지고야 맙니다.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박물관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3년 불이상 수상자 종림 스님, 김천학 소장

고려대장경 전산화 및 연구 한일 화엄사상 연구 공로



종림 스님 김천학 소장

2013년 불이상 수상자로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이 선정됐다.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6월 14일 제28회 불이상 수상자로 실천부문에 종림 스님, 연구부문에 김천학 소장을 각각 선정했다.

실천부문을 수상한 종림 스님은 1996년 세계 최초로 고려대장경경을 전산화했으며 조조대장경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웹서비스를 통해 대장경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장경 연구와 조조대장경 복원 사업 추진 등 관련 사업 발전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부문을 수상한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일본의 화엄사상 연구 분야에서 해외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로 불교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2000만

불이회, 6월 14일 수상자 발표 시상식은 7월5일 호암아트홀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5일 오후 2시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불이상은 재가불교 및 여성불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설립된 불이회가 198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교계 대표적인 상으로 매년 연구와 실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한편 올해 불이상 심사위원장은 김상현 동국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학도 2명 GPF 선정 쾌거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3년 글로벌박사펠로우십(GPF)에서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 전공 박사과정인 하현목(30)씨와 계미향(50)씨가 선정됐다.

글로벌박사펠로우십은 세계적 수준의 박사 육성지원 사업으로 매년 석박사과정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학생들은 월 250만원씩 연간 3,000만원을 2년동안 지원받는다.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하다.

불교학 전공인 하현목 씨는 ‘중론의 인·법 무이연구’를, 불교사학 전공인 계미향 씨는 ‘신라구법승의 구법활동과 사상 심층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박사과정 송경세(26) 씨도 이번 GPF에 선정됐다.

송경세 씨는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물질의 전기화학특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이번 선정 결과와 관련해 동국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각 학과 지도교수를 비롯해 학교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인 것이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 ‘길위에서’ 단체 관람 12일 이대 아트하우스 모모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앙총무기관, 산하 단체 총무원들은 6월 12일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비구니 스님의 출가와 수행의 과정을 다룬 다큐영화인 '길 위에서'를 관람했다. 자승스님은 영화 시작 전 감독인 이창재 교수(중앙대)를 만나 스님들의 수행을 영상으로 담은 감독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신)

이창재 감독은 영화 상영 전 인사말을 통해 “백홍암에서 보낸 1년의 시간동안 돌아보니 자신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며 “이 영화를 10번도 넘게 본 분이 출가를 위해 백홍암을 찾아가겠다는 소식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목 스님은 6월 10일 이창재 감독과 압구정CGV에서 영화 상영에 앞서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에너지 줄이기 불교계도 동참



서울 조계사와 불교환경연대, 불교생태환경연구소는 6월 13일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10% 줄이기’ 협력 사업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은 “에너지 10% 줄이기 사업에 참여해 서울시가 염원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숭수수행하는 길”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가족회사 교류의 날’ 개최

동국대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단장 남윤석)은 6월 1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가족회사 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가족회사 교류의 날 행사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지역기업들과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소재한 60여개 기업 대표와 최양식 경주시장, 경주시의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인사말에서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On-Heat' (온열복대) health produc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a list of symptoms it treats (back pain, joint pain, etc.),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The text is in Korean and includes a phone number (02)723-0099.